

기획특집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성향과 제주도에의 시사점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 의 현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매우 독특한 지역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기업의 특성을 알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기업의 경험, 그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다음 제주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들어가는 말

창바이산(백두산)의 인삼을 한라산 기슭에서 가공하여 서울에서 판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실제 한 지인이 지난 가을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삼이라고 하면 한국산을 떠올리는데 중국산 인삼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이 지인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무엇보다도 ‘백두’와 ‘한라’라는 이미지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난겨울 유명 할인매장에서 황태를 구입했다. 하나는 강원도 용대리 덕장 황태고, 다른 하나는 중국 창바이산 청정지역에서 그 할인점이 직접 품질 관리하여 생산한 제품이란다. 가격은 국산이 훨씬 비쌌다. 물론 원산지는 둘 다 러시아다. 맛을 보니 역시 국산이 비싼 값어치를 하였다.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면 원래 황태의 고향인 원산의 기후가 백두산 언덕에 더 가까울 텐데 말이다.

사물을 좋은 측면에서만 보면 계속 그 면만 보이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

회비용, 매물비용은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중국이 몰려오고 있고, 중국을 이용해야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중국 자체가 모든 상황의 해결책은 아니다.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매우 독특한 지역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기업의 특성을 알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기업의 경험, 그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다음 제주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해외투자에 나서는 중국기업의 최근 특징

언론과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매우 괄목할만 하다.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100억 달러를 넘었고, 2010년에는 68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누적 기준으로 2002년 303억 5천만 달러에서 2010년 3,172억 1천만 달러로 8년 만에 열배 이상 늘어났다. 2010년 전 세계 해외투자에서 중국은 5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중국기업에 의한 해외 M&A는 다양한 지역 및 산업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중국은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총 25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석유자원 개발 투자액의 25%에 해당된다.

중국석유화공(Sinopec)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131억 달러를 투자하여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인 썬크루드(Syncrude)와 브라질 렘솔(Repsol)의 지분 등을 인수하였다. 렘솔 인수 건은 2010년도 전 세계 국경간 M&A중 열 번째로 큰 사업이었다. 이 외 중국해양석유(CNOOC)는 아르헨티나 석유 및 천연가스 업체인 브리다스(Bridas)의 지분 50%를 3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제조업 분야의 대형 M&A로 2010년 3월 지리자동차가 15억 달러로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를 인수한 사례, 2011년 1월 란싱(藍星)이 노르웨이 기업인 오르크라(Orkla)의 실리콘사업부를 22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라오닝첨단에너지, BTD, 중신그룹 등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영성과가 좋지 못했던 일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의 유명 종합관광 그룹인 진강궈지(锦江国际)가 2010년 3월, 9,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미 최대의 호텔관리회사인 인터스

테이트 호텔&리조트의 지분 50%를 매입했고, 하이난항공(HNA)은 62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1년 3월 스페인의 NH호텔 지분 20%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통계는 절대적인 금액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기업의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해외투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으로의 투자가 전체의 56%(2010년 유량기준)에 달한다. 또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카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두 지역으로의 투자도 14%나 된다. 이러한 특수 지역으로의 투자 중 상당수는 나중에 외국 자본으로 탈바꿈되어 중국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688억 달러에 달하는 통계상의 표면적인 해외투자 액수에서 20% 정도인 140억 달러 정도가 의미 있는 해외투자이고 또 이중 상당수는 에너지 개발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는 통계수치만으로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과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유형을 소개하면,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 개도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 그리고 선진국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첨단기술을 획득하려는 투자 등이 있다. 에너지 자원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정부 소유의 에너지 기업에게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하면서 전 세계의 유전과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우리가 볼 때는 기술수준이 낮고 조잡한 공업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중국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면서 중국보다 소득이 조금 낮은 국가의 기업보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이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가전제품이나 의류·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기술획득을 위해 선진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쌍용차나 하이닉스도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기업에 인수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렘상의 IBM 썬크패드 인수, TCL의 프랑스 톰슨 인수 등도 기술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었다.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때 만일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다면 기술획득이 주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관광, 리조트, 쇼핑센터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재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분야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우선순위에서 뒷자리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외투자에 나서는 중국기업은 대부

본 국유기업이고,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국유기업에 맞춰져 있다.¹⁾ 만일 특정 민영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려 한다면 유보자금을 사용하거나 국제차관, 사모펀드 등에 의존해야 한다. 일부 대형 민영기업의 경우 중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잘 알려진 대형 민영기업인 지리자동차는 2009년 볼보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 18억 달러, 운영자금 9억 달러 등 총 27억 달러를 투입하였는데,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50%씩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중 국내 자금은 자체 자금이 50%, 은행대출이 50%였으며, 은행대출은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의 저장(浙江) 지점과 런던지점을 통해 조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에 투자할 중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기업은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국내에서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둘째, 만일 민영기업이 한국에 투자한다면 충분한 여유자금을 가진 회사이어야 할 것이며, 대형 사업에의 참여는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익히 알려진 몇 개의 대형 M&A 사례를 제외하면 1억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거의 절대 다수이었다.

3. 중국기업의 한국 기업 M&A의 특징과 성과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 합병한다고 하면 절대 다수의 한국인은 2009년의 쌍용차 사태를 떠올릴 것이다. 최근까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된 쌍용차는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재 매각되었지만, 아직도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요원한 상태이며, 제품판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 쌍용차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표1>의 재무성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년 이후 총자산증가율이 산업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특히 2006년, 2008년, 2009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동종 업종에 비해 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출에 있어서도 총자산증가율과 유사하게 2006년 이후 연속 4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개발은 인수 이

1) 『대외경제기술 합작 특정자금 관리 방법』 (2005)에 명시되어 있다.

후 매년 산업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다.

인수 이후 설비투자의 부진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인수 이전 산업평균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하였으나, 2004년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이 2008년에는 -41.62%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2008년 이후 크게 악화되어 결국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면 기업은 장·단기채무를 변제할 상환능력이 악화된다.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단기채무와 장기채무의 변제능력을 나타낸다. 쌍용차는 인수 후 부채비율이 급상승하여 2008년에는 산업평균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유동비율 또한 2009년을 제외하면 산업평균보다 낮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 역시 인수 후 경영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표2>는 상하이차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인데 쌍용차 인수 당시 2004년 14%이던 상하이차의 총자산수익률은 갈수록 하락하여 2006년 2%, 2008년 1%가 되었고, 순자산수익률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하여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영지표 면에서 M&A 첫 해인 2005년 총자산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이 모두 하락하였고, 2008년 쌍용차의 경영악화로 본사의 운영지표 역시 악화되었다. 한편, 자산부채비율은 2006년 이후 크게 악화되었고, 유동비율은 하락하여 단기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부채비율은 상승하여 장기채무 변제가능성도 낮아졌다. 물론 상하이차가 상하이GM, 상하이폭스바겐 등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았겠지만, 쌍용차의 경영악화가 본사의 경영성과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기업에 인수된 한국기업이라고 모두 쌍용차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었다.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액토즈소프트는 2004년 중국 게임업체인 썬다에 인수되었다. 하지만 <표3>, <표4>에서 보듯이 이들 두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은 서로 win-win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의 쌍용차 사례와의 차이점은 썬다는 액토즈소프트의 기술(즉 상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동시에 한국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도 함께 추구했지만,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한국시장 판매 증가는 뒤로한 채 기존 기술을 본사로 이전하는 것에만 주력한 나머지 쌍용차도 망하고, 자신도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동반관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4.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애로사항

실제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대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대형 기업이 아니라 그 규모가 매우 작은 중소형 기업이다. 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투자 가운데 99%가 1백만 달러 미만이었으며, 1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단 10건에 불과하였다. 도·소매업, 수출입사무소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1건당 투자 규모는 37만 달러로 매우 낮았다.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명단은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실제 한국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주한대사관 상무부의 기업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 이 기업 자료는 2008년 말까지 모두 79개사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화 5천만 원 이상이고, 10% 이상의 주식 혹은 지분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권 혹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에 한정하였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²⁾

중국기업의 투자방식은 독자기업이 전체의 65%, 합작투자가 20%이었으며, 고용된 직원은 중국직원이 한국직원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지사의 주요 업무분야를 보면 사무소(25%), 도소매 및 무역이 각각 20.0%, 운송(10%) 등 소수의 종업원으로 운영되는 업종이 많았다.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개(2.5%)에 불과하여 제품 생산지로써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동기로는 한국을 통해 제 3국으로 수출확대(15.0%)하거나 한국 거래기업과의 협력에 유리(15.0%)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 한중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정책에 힘입어 한국에 투자하였다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동기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 내 판매가 주요 목적이었고, 한국 내 제품 생산이나 기술 습득 등의 요인은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중국투자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52.9%의 기업이 만족하다고 평가하였고,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는 8.8%에 불과하여 한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기업으로 하이얼을 들 수 있는데, 하이얼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한국시장에

2) 조사는 2010년 7월 6일~2010년 9월 20일 사이 실시되었으며, 총 40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최의현, 장나(2010),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특징과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과중국학』, 제13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를 참조

서 소형 LCD TV와 모니터 및 소형 세탁기 부분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제조업체인 3노드디지털(三諾電子)과 은행, 여행업 기업들도 한국내 경영성과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경영성과에 불만족을 표시한 한 무역회사는 수출입 통관절차와 물류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일부 도·소매기업은 매장 위치가 열악하여 성과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중국기업들은 투자 초기의 애로사항으로 한국 내 중국제품에 대한 이미지의 미성숙(22.5%)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중국 제품 브랜드 가운데 하이얼 정도만 일부 한국인에게 알려졌을 뿐 다른 중국 제품은 ‘중국산’이라는 명칭으로 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기업은 한국 직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냈다. 급여 수준의 경우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임금 수준이 높은 상하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투자기업이 중국 본사직원보다 한국지사의 한국직원에 대한 급여를 훨씬 높게 주고 있는데, 본사직원의 업무 능력과 비교하면 불만을 갖게 되고 또한 한국 직원도 동종업종의 한국기업에 비해 급여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동방항공은 한국인 신입사원 연봉으로 한화 1,800~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쟁관계인 한국 항공사는 2,800~3,200만 원을 주고 있어 직원들이 중국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후 한국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판매 영업시의 애로 사항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인들은 ‘중국산 수입 농산물 중금속 오염 심각’과 같은 언론 기사들이 중국산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으며, 중국산이 한국 내 통관심사에서도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유통시장 접근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는데 한국 물류시장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신규 진입이 쉽지 않고,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영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중국기업이 중국 본사의 지시에 의해 경영활동을 하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에서 제약을 받아 한국 내 경영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5. 결론: 쑤닝전기(苏宁电器) 사례가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

제주도는 중국기업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첫째, 2장의 소결은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의 기술력에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술기업이 제주도에 있다면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둘째, 3장에 따르면 단순히 기술만을 획득하려는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는 실패했고, 한국과 중국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 투자해도 한국 시장과 중국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4장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평균적인 투자 규모는 매우 작았으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상당히 만족하였다. 중국기업을 지원할 한국인 인재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내수시장과 인재 면에서도 본토에 비해 큰 경쟁력이 없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 이에 기존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사례가 아닌 일본의 경험을 통해 서비스 산업으로의 중국자본 유입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하이마트와 유사한 기업으로 중국에는 쑤닝전기가 있다. 쑤닝은 2009년 일본의 가전 아울렛 업체인 라옥스를 인수하였다. 라옥스는 193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한때 일본 전역에 88개의 아울렛 매장을 가진 업체였지만, 교외지역에 신규로 들어선 후발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2001년 이후 연속 8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이 매우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면세품코너는 중국계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 쑤닝은 라옥스를 중국인에게 특화된 가전 할인점으로 양성하고, 일본산 가전제품을 중국의 쑤닝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만일 중국업체가 제주도에 투자한다면 쑤닝의 라옥스 인수 사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자본이 제주도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이미 투자하였다는 소문도 있다. <표5>와 같이 여러 중국기업이 제주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매우 부진하고, 의향서를 교환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³⁾ 게다가 중국은 현재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본토기업이 합법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경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이면 탁 트인 내몽고 초원에서 휴가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거기에서 이들은 한족 문화와 차별화된 몽고족의 풍습을 즐기곤 한

3) 「중국, 제주투자 관심 높기는 한데, 그 중 일부는…」, 『제주의소리』, 2012. 01.16.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68>)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쪽들이 몽고족이 운영하던 리조트를 매입하여 리조트가 좀 더 중국화 그리고 자본주의화 되었다. 몽고족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비해 편해졌기는 하지만, 이전의 독특하고 정겨웠던 이민족 풍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와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더 발전하고, 중국 관광객이 더 몰려온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중국의 관광지와 다른 그 무엇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다. 중국자본의 도입이 자칫 제주도의 특성을 퇴색시킬 수도 있고, 늘어나는 중국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다양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JDI**

〈표1〉 쌍용자동차의 재무성과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지표	총자산증가율	15.12	3.18	3.78	-13.2	2.8	-29.45	-18.58	6.25
	투자지출	0.47	7.22	1.69	-1.4	-2.91	-32.24	-2.00	1.08
수익성지표	총자산순이익률	24.95	0.44	-3.89	-7.75	0.49	-41.62	-24.94	0.55
	매출액순이익률	17.97	0.35	-3.01	-6.64	0.37	-28.44	-32.46	0.39
재무건전성 지표	유동비율	94.05	80.69	94.54	77.2	99.92	71.49	120.52	58.52
	부채비율	109.75	113.88	141.56	154.1	150.12	561.3	361.87	377.61

자료: KisValue, <http://dart.fss.or.kr/>

〈표2〉 해외직접투자 이후 상하이차의 재무성과 변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익성지표	총자산수익률	13	14	8	2	5	1
	순자산수익률	15	17	9	4	12	2
자산운영지표	총자산회전율	0.6	0.57	0.45	0.6	1.12	1.01
	재고자산회전율	5.33	3.84	3.43	4.39	13.26	12.19
재무건전성지표	유동비율	2.22	2.43	2.45	1.13	1.12	1.02
	부채상환비율	0.80	0.98	1.08	1.32	1.20	1.17

자료: 彭琼仪(2011), 「中国企业跨国并购的经济绩效分析-联想' TCL' 上汽的跨国并购案例研究」, 『财会通讯』, 2011年 第2期: 76-78.

〈표3〉 엑토즈소프트의 재무성과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지표	총자산증가율	98.9	-15.78	1.34	5.09	26.96	17.59	21.22	0.48
	투자지출	0.64	-0.13	0.66	0.08	0.11	0.13	0.14	-0.02
수익성지표	총자산순이익률	22.77	14.23	2.14	2.17	14.94	8.93	1.12	1.6
	매출액순이익률	25.57	23.18	4.31	4.41	20.45	8.88	0.91	1.75
재무건전성 지표	유동비율	179.08	418.73	425.26	317.22	354.8	299.06	316.1	305.27
	부채비율	65.96	13.7	13.07	15.73	21.43	29.69	46.08	41.31

자료: KisValue, <http://dart.fss.or.kr/>

〈표4〉 썬다의 재무지표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익성지표	총자산순이익률	29.4	14.2	3.7	10.3	29.3	19.0	9.9	4.1
	총이익증가율	79.4	125.9	54.9	-24.8	72.1	53.5	47.4	-9.0
자산운영 지표	총자산회전율	64.6	30.3	42.4	32.2	51.8	55.2	32.4	37.4
채무상환 지표	유동비율	251.3	764.5	549.7	135.1	343.7	357.2	716.4	246.1
	부채비율	48.8	184.9	172.7	112.7	25.5	70.0	23.2	38.1

자료: Shanda Interactive Entertainment Limited Annual Report(2004~2010)에서 계산
(<http://ir1.snda.com/annuals.cfm>).

〈표5〉 제주에 투자하려는 중국기업 현황

투자기업	총사업비 (억 원)	중국측 투자액 (억 원)	투자 예정사업
분야그룹(하얼빈, 부동산)	4,700	572	제주시 이호동, 이호랜드
백통그룹(칭다오, 부동산)	2,100	100	남원읍 위미리, 종합휴양업
홍유개발(선양, 농장경영)	8,500	30	애월읍 봉성리, 상원랜드
시포트그룹(선양, 부동산)	1조2,000	0	구좌읍 원동지구, 종합휴양업
소림사(덩펑, 무술학교)	2,100	0	대정읍 송악산, 무술학교
광요그룹(선전, 부동산)	3,000(추정)	0	표선면 성읍리, 종합휴양업
팬차이나(상하이, 부동산)	3,000(추정)	0	부지매입 협의중, 종합휴양업

자료: 경향신문, 2011년 10월 11일자